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

1. 머리말

본 보고서는『2021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송대 유학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1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석사·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국내 석·박사논문,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원대(元代) 유학 관련 논문 4편을 포함하여 총 43편이다. 2018년 46편, 19년 21편, 20년 10편과 비교했을 때 편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2018년의 수준만큼 다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전에 없던 호원, 장구성, 황진, 전시에 관한 논문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호원(안정, 993-1059),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이(이천, 1033-1107), 소식(동파, 1036-1101), 남송시대 성리학자인 장구성(횡포거사, 1092-1159), 주희(회암, 1130-1200), 육구연(상산, 1139-1192), 양간(자호, 1141-1226), 채침(구봉, 1167-1230), 전시(융당, 생몰년 미상), 황진(동발, 1212-1280)과 원대 성리

학자인 허형(노재, 1209-1281), 오징(초로, 1249-1333)에 관한 논문 등 총 1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과 어떠한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이기론, 3)심성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와 관련된 경우에도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분석·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2019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북송 시대에는 소옹 1편, 주렴계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 1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으며, 남송 시대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주렴계와 채침은 주희와의 관련 논문이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2020년도엔 소식의 논문이 1편 새로 등장했고 정명도 1편, 주희의 논문이 7편이다.

1) 호원(안정, 993–1059),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호원에 관한 논문은 1편으로 호원사상이 정이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정환희는 먼저 호원과 정이의 사승관계를 논하였으며, 그런 다음 정이의 「호학론」과 『이천역전』이 호원의 심성수양론과 의리역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전 호원에 관한 논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2) 소옹(강절, 1011–1077),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무	소옹의 선천역학과 황극경세의 원리	학위논문(석사) 2021. 2	공주: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옹에 관한 논문은 석사논문 1편으로 소옹의 선천역학의 시대적 배경과 진단의 도상학(圖象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象)과 수(數), 리(理)로써 우주의 운행원리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논하였고 또한 소옹 역학의 핵심 사상인 선천역학(先天易學)과 황극경세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전 소옹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 3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소옹에 관한 연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3) 주돈이(염계, 1017–1073), 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2	김제란	송대(宋代) 주돈이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	이대승	「태극도」 연구의 새로운 탐색 –'구「태극도」'의 존재와 의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정환	도학(道學) 문론(文論)에서의 재도(載道)와 주돈이(周敦頤) 「문사(文辭)」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4편으로 음양오행, 「태극도」, 불교와 주돈이 철학의 연관성, 『통서』·「문사」에서의 재도(載道)의 의미와 위상 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3편,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돈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감소

했다가 2021년에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4) 장재(횡거, 1020–1077),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제란	송대(宋代) 장재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	장석호	장횡거의 수양론 연구 : 우주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3	정환희	만물일체와 리일분수 -「서명」을 바라보는 두 시선과 그 공부론	교육사상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장재에 관한 논문은 모두 3편으로 일반논문2편, 박사학위논문1편이다. 논문3편의 주 내용은 불교와 장재철학의 연관성, 수양론, 「서명」에 대한 만물일체와 리일분수의 관점과 그에 따른 공부론이다. 이전 장재에 관한 논문은 2018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9년에 1편 발표되었다.

5) 정이(이천, 1033–1107),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이연정	정이(程頤) '경'에 대한 소고(小考) – 공부 원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2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정이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경'공부에 관한 논문과 정이사상과 호원사상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이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3편,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6) 소식(동파, 1036–1101),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차영익	소식(蘇軾)의 『동파역전(東坡易傳)』에 나타난 괘효구조(卦爻構造)를 바라보는 제물론적 인식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소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의 『주역』을 바라보는 제물론적 관점에서 『동파역전』에 나타난 괘효구조를 해명한 논문이다. 이전 소식에 관한 논문은 2018년과 2019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0년에 소식의 인성론에 관한 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도 1편이 발표되었다.

7) 장구성(횡포거사, 1092–1159),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영식	張九成의 中和說에 관한 연구 –『中和說』의 『中庸』 1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6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장구성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장구성의 중화설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송대 주희 이전의 낙학(洛學) 및 도남학(道南學) 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철학적 논의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전 장구성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이춘영(李春穎)의 「장구성과 주희의 신독사상비교〔张九成与朱熹慎独思想比较〕」라는 중국어논문1편이 『유학연구』에 발표되었고 2019년,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8)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백녕	주자의 일물(一物)과 이물(二物), 그 실천철학적 함축과 전개양상 연구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수연 신창호	듀이(J. Dewey)와 주희(朱熹)의 교육목적 비교: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와 『소학(小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제15권 제2호	한국인격교육학회
3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4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연구원
5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6	김형찬	이학(理學)과 심학(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 – 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7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 —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0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8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9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제149집	퇴계학연구원
10	유준필	『論語集註』의 문헌학적 읽기(1) – 「學而」편 1장의 주석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11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1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2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12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 제67집	온지학회

13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14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정환희	통찰: 활연관통(豁然貫通)의 현대적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84집	동양고전학회
16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7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철학연구 제159집	대한철학회
19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20	한지윤	주희(朱熹)의 학(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무(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1	홍린	주희 이고(李翱) 멸정론(滅情論) 비판의 타당성 재고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황갑현	中和新說과 주희철학의 핵심 本領	범한철학 제102집	범한철학회

주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2편으로 일반논문 20편과 박사학위논문 2편이다. 2021년 발표된 송대유학관련 전체논문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20세기 서양 철학자와의 비교와 기독교와의 비교연구는 매우 새롭다. 이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매년 다른 인물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45편 중 27편이고 2019년에는 21편 중 8편이며 2020년에는 10편 중 7편이다.

9) 육구연(상산, 1139–1192),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철학연구 제159집	대한철학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유가 경전에 대한 주희와 육구연의 관점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2018년 2편, 2019년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0) 양간(자호, 1141–1226),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의 『시경』 주석 연구 – 『자호시전』의 구성 체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	양명학 제60호	한국양명학회

양간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양간이 『시경』을 주석한 『자호시전』의 구성체제와 특징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양간에 관한 논문은 2018년에 이동욱의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 - 「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1편 발표되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1) 채침(구봉, 1167–1230),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 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채침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상서』의 주석서인 채침의 『서집전』과 전시의 『융당서해』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이전 채침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2) 전시(융당, 1175–1244),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전시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상서』의 주석서인 채침의 『서집전』과 전시의 『융당서해』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이전 전시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당명귀(唐明貴)의 「錢時《論語》詮釋的特色」이라는 중국어논문과 김서윤의 「송대 유학자 錢時의 『중용』 해석 연구 – 주희의 『중용장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 2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3) 황진(동발, 1212–1280),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태동고전연구 제47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황진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황진의 『황씨일초(黃氏日抄)』·「인심유위일장(人心惟危一章)」에 나타난 전심설(傳心說)과 심학(心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남송말 학술계의 일면을 드러낸 논문이다.

이전의 황진에 관한 논문은 이범학이 2001년에 발표한 「황진의 이학과 심학비판」과 2003년에 발표한 「황진 사상의 경세적 특징」이 있고, 그 이후로는 10여 년간 발표되지 않다가 2015년 중국학자인 당명귀(唐明貴)가 『유교사상문화연구』에 「黃震《讀論語》的學術特色」이란 논문을 중국어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황진을 연구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14) 허형(노재, 1209–1281),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독역사언(讀易私言)」 분석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해임	허형(許衡)과 정몽주(鄭夢周)의 화이관(華夷觀)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허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허형의 『주역』 주석서인 「독역사언(讀易私言)」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허형과 정몽주의 화이관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전에 허형을 연구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5) 허형(노재, 1209–1281),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중국학보 제98집	한국중국학회
2	안재호	吳澄의 '心學' 체계 芻議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오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오징의 심학(心學)적 공부론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오징의 '심학'체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오징과 관련된 논문은 임재규가 2017년에 발표한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이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없다.

16) 송대유학 관련,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강희	宋代 新儒學者들의 仁論과 理一分殊 개념	東洋哲學 제56집	한국동양철학회
2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 제67집	한국사상사학회
3	조민환	宋明유학자들의 顔回理解에 관한 연구 - 顔回의 '屢空'적 삶에 대한 미학적 이해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제53호	한국동양예술학회

송대유학 관련 논문은 어떤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으로 송대 유학자들의 인론(仁論)과 리일분수(理一分數) 개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리한 논문, 송명유학을 연구하는 '사상'과 '철학'의 방법론적 문제를 성찰하여 '유학'을 인식론적 틀 속에 재정의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논문, 안회의 삶에 대한 송명유학자들의 미학적 이해와 재인식을 연구한 논문 등 모두 3편이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총 43편의 논문 중 기타 8편을 제외한 35편으로 일반 논문 31편과 4편의 학위논문이 있다. 따라서 35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11편, 이기론4편, 심성론7편, 수양론10편, 인식론1편, 비교8편이다.

1) 경학(1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 —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0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3	박영식	張九成의 中和說에 관한 연구 –『中和說』의 『中庸』 1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6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4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제149집	퇴계학연구원
5	유준필	『論語集註』의 문헌학적 읽기(1) –「學而」편 1장의 주석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11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6	이동욱	양간의 『시경』 주석 연구 – 『자호시전』의 구성체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	양명학 제60호	한국양명학회
7	이원석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독역사언(讀易私言)」 분석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이진무	소옹의 선천역학과 황극경세의 원리	학위논무(석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9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0	차영익	소식(蘇軾)의 『동파역전(東坡易傳)』에 나타난 괘효구조(卦爻構造)를 바라보는 제물론적 인식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주로 『서경』, 『시경』, 『주역』, 『대학』, 『중용』, 『논어』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서경』 1편, 『시경』 1편, 『주역』 3편, 『대학』 3편, 『중용』 1편, 『논어』 2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주역』과 『대학』관련 논문이 각각 3편으로 가장 많고 『논어』관련 논문이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경학 관련 논문은 2018년 9편, 2019년 3편, 2020년 3편이 있다.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2	이대승	「태극도」 연구의 새로운 탐색 –'구「태극도」'의 존재와 의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2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5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음양오행, 태극, 이기(理氣), 귀신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이기론 관련 논문은 2018년 10편, 2019년 4편, 2020년 1편이 있다.

3) 심성론(7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연구원
2	김형찬	이학(理學)과 심학(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 – 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3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안재호	吳澄의 '心學' 체계 芻議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5	윤상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태동고전연구 제47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6	이강희	宋代 新儒學者들의 仁論과 理一分殊 개념	東洋哲學 제56집	한국동양철학회
7	홍린	주희 이고(李翱) 멸정론(滅情論) 비판의 타당성 재고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심성론(心性論), 심학(心學), 심(心), 인(仁), 정(情)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심성론 1편, 심학 3편, 심 1편, 인 1편, 정 1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심학관련 논문이 3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2018년 2편, 2019년 3편, 2020년 3편이 있다.

4) 수양론(10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	안재호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중국학보 제98집	한국중국학회
3	이연정	정이(程頤) '경'에 대한 소고(小考) – 공부 원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2집	한국중국문화학회
4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 제67집	온지학회
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6	장석호	장횡거의 수양론 연구 : 우주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박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7	정환희	만물일체와 리일분수 –「서명」을 바라보는 두 시선과 그 공부론	교육사상연구 제35권 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8	정환희	통찰: 활연관통(豁然貫通)의 현대적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84집	동양고전학회
9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0	한지윤	주희(朱熹)의 학(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1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수양·수양론, 공부론, 존덕성(尊德性)·도문학(道問學), 미발공부, 경(敬)공부, 활연관통(豁然貫通), 학(學)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수양·수양론 3편, 공부론 1편, 존덕성·도문학 1편, 미발공부 2편, 경(敬)공부 1편, 활연관통 1편, 학(學) 1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수양·수양론 관련 논문이 3편으로 가장 많고 미발공부 관련 논문이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수양론 관련 논문은 2018년 10편, 2019년 3편, 2020년 2편이 있다.

5) 인식론(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주희와 왕양명의 담론을 검토하여 도덕적 덕성과 지(智)적 덕성의 통일적 이해에서 덕성인 '지(智)'의 내재화가 갖는 의미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인식론 관련 논문은 2018년 3편, 2019년 3편이 있고, 2020년에는 없다.

6) 비교(8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 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	김수연 신창호	듀이(J. Dewey)와 주희(朱熹)의 교육목적 비교: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와 『소학(小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제15권 제2호	한국인격교육학회
3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사상
4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제87집	연구원
5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
6	이해임	허형(許衡)과 정몽주(鄭夢周)의 화이관(華夷觀) 연구	한중문화언어연구 제62집	연구원
7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8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5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비교에 관한 논문은 모두 8편으로 크게 인물과 인물의 비교, 종교와의 비교, 경전주석서의 비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의 비교가 5편, 종교와의 비교가 2편, 경전주석서 비교가 1편이다. 그중 인물과 인물의 비교가 5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비교 관련 논문은 2018년에 4편이 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없다.

7) 기타(8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백녕	주자의 일물(一物)과 이물(二物), 그 실천철학적 함축과 전개양상 연구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제란	송대(宋代) 주돈이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	김제란	송대(宋代) 장재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4	이정환	도학(道學) 문론(文論)에서의 재도(載道)와 주돈이(周敦頤) 「문사(文辭)」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5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 제67집	한국사상사학회
6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7	조민환	宋明유학자들의 顔回理解에 관한 연구 – 顔回의 '屢空'적 삶에 대한 미학적 이해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제53호	한국동양예술학회
8	황갑연	中和新說과 주희철학의 핵심 本領	범한철학 제102집	범한철학회

위에 제시한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기타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기타논문은 2018년 11편, 2019년 5편, 2020년 1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총 43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안재호의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윤상수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이종우의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 등 3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1) 안재호의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이 논문은 원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오징(초려, 1249-1333)의 심학(心學)의 공부론을 존덕성과 도문학의 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필자는 서론에서 오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자학과 상산학을 종합하려는 주륙절충론'자가 아니라 주자학을 발전시킨 인물일 뿐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오징의 '도통계승'에 대한 이해를 들어 "오징은 …… 육구연(상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부론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자와 같이 '존덕성'을 간과하지 않는 '도문학'에 있었다."라며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전개방향에 관해서는 "본문은 오징이 어떻게 도통의 계승을 자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공부론을 살필 것이다. …… 그러므로 먼저 그의 '존덕성'과 '도문학'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 살펴볼 것이다."라며 '공부론'을 먼저 설명할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오징의 공부론을 바로 고찰하면 그의 철학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징의 "심학"체계에 대하여 먼저 고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논문의 제2장에서 오징의 "심체(心體)"와 "심지체(心之體)"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징의 '심체'는 육왕(陸王)의 '심즉리'가 아니라 '성리에 따라 일신을 주재하는 대리자'이며 '심지체'는 '심의 핵심'이면서 '성리(性理)'를 말한다. 따라서 오징의 심학이란 성리를 이해하고 본심을 잃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知性〕과 그에 근거한 도덕 실천의 완성〔養性〕이며 경(敬)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그것을 일상에서 실현하여 이상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체계이다." 이처럼 필자는 오징의 "심체"와 "심지체"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제3장에서 오징의 "존덕성"과 "도문학"의 공부에 대하여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오징의 관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모든 공부는 '경'에 근거한다. 둘째, 구체적 현실에서 여러 정황을 주재할 수 있는 주체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주체의 정립에 있어서 규범의 습관화가 그에 대한 원리적 이해보다 앞서야 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오징의 공부론은 비록 '존덕성'을 우선 하고 '경'공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규범적 생활의 습관화로부터 이성주의에 이르는 '도문학'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필자는 오징이 '존덕성'공부를 우선으로 해서 규범적 습관화를 실현한 다음 '도문학'공부를 통해 이성주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존덕성'과 '도문학'의 체계로 구성된 오징의 공부론은 전통 주자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의 습관화를 강조하고 '도문학'으로 출발하는 이성주의 도덕론은 주자학적 전통을 특정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

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오징은 원대의 유학자로서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는 인물이다. 이 논문은 오징의 선"존덕성"과 후"도문학"의 체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얼핏 오징의 "심학", "심체"란 표현이 "도문학"보다는 "존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오징의 관점을 제대로 잘 드러내었다.

2) 윤상수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이 논문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남송 말기의 유학자인 황진(1213-1281)의 인심유위(人心惟危)장 해석을 통해 남송말기 학술사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윤상수는 이 논문에서 먼저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주로 『사고전서총목』과 『송명학안』, 그리고 전목(錢穆, 1895-1990) 등의 후대의 평가를 빌어 "남송 말 주자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안으로는 진순과 요로로 대표되는 훈고학적 경향을 비판하여 주자학을 중흥시키고, 밖으로는 육구연의 고제 양간을 비판하여 주자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주희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터득한 바가 깊었으며, 만약 자신이 자득한 것과 어긋난 점이 있다면 아무리 주희의 견해라도 바로잡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자학자이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황진이 생각하는 인심유위장의 본지(本旨)에 대하여 "황진이 강조하는 인심유위장의 본지는 '마음을 전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전수함'에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불교심학"이란 주제로 황진이 생각하는 "도의 기원으로부터 주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황진의 양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황진은 불교 심학을 물리쳐 리학(理學)을 위기에서 구한 것을 주희의 위대한 공적으로 평가하였고 주희를 계승하여 양간의 불교 심학을 비판 극복하려 하였다."라고 하며 황진의 전심설의 비판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황진과 동시대에 살았던 문급옹(文及翁)의 '마음'과 '심학'에 관한 문장과 양간의 심학을 옹호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당시의 심학과 리학의 대립은 "황진과 문급옹의 사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며 주륙대립이 남송말 학술의 일면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전 황진에 대한 연구는 2001년과 2003년에 발표된 2편의 논문이 전부이다. 그만큼 한국학계에서의 황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윤상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의미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 윤상수는 황진의 심학에 대한 비판과 문급옹의 심학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들어 이것이 주륙대립이며 남송 말 학술의 일면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급옹의 글에 그가 리학자를 직접 비판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문급옹은 다만 자기 스승인 양간(楊簡)의 학문이 선학(禪學)이라고 비난한 자에 대한 비판이지, 결코 주자학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 주륙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필자는 황진의 심학과 심학자에 대한 비판이 주륙대립이고, 이것은 남송말기 학술계의 일면이라는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3) 이종우의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

이 논문은 주희가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의 미발(未發)이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 것과 미발일 때에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에 착안하여 주희의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의 미발(未發)과 그 공부의 동이(同異)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종우는 두 번째 장인 "중(中)과 부중(不中)의 미발: 성인과 중인에 관련하여"에서 주희가 미발을 중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혼탁함으로 인해 미발시(未發時)에도 부중이 된다는 말을 들어 주희가 말한 미발일 때의 부중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주희가 말한 성인과 중인의 미발시의 같고 다름에 대하여 "성인은 미발시에 그 기질이 혼탁하지 않고 밝고 맑기 때문에 중이고 중인은 미발시에도 혼탁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중이 아니라 부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인은 항상 부중의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라 중인도 미발시에 혼탁하지 않고 밝으면서 맑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중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본래 성인과 중인은 같다고 여겼다."라고 하며 "주희가 말하는 중의 미발은 본연지성을, 부중의 미발은 기질지성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본연지성으로서 중의 미발은 성인과 중인이 같지만 기질지성으로서 부중의 미발은 다른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주희의 성인과 중인의 미발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근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희가 미발을 중과 부중으로 구분한 것은 『중용』의 중의 미발을 보완한 것이고, 독창성이 발휘된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장인 "미발공부의 유무: 성인과 중인에 관련하여"에서는 주희의 성인과 중인의 미발공부의 유무(有無)에 대하

여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먼저 주희가 미발시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주희가 『중용』에서의 "계신공구(戒愼恐懼)"를 미발공부라 해석하였고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막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부라고 하였으며, 군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학자가 먼저 해야 할 의무라고 한 내용을 빌어 계신공구가 학자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중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중인도 성인처럼 중의 미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때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주희의 말을 빌어 주희가 말한 미발공부는 성인의 공부가 아니라 미발시 부중의 상태에 있는 중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주희의 미발시의 중과 부중에 대하여 자세히 논했으며 더 나아가 미발공부의 유무를 성인·중인과 연결시켜 논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논문제목과 본문에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과 부중의 미발", "중의 미발", "부중의 미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미발"이라는 단어는 『중용』에 나온다. 『중용』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에서 "미발"은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중(中)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미발'의 상태가 곧 '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이 곧 '미발'의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먼저 "미발"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뒤에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말한 "중의 미발"은 "먼저 '중'이라는 조건이 있은 후에 '미발'의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아 보인다. 따라서 "중과 부중의 미발", "중의 미발", "부중의 미발"은 "미발시의 중과 부중", "미발시의 중", "미발시의 부중"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1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세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2021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학위논문 4편을 포함하여 총 43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2018년 45편, 2019년 21편, 2020년 10편으로 논문 편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 인물별 분류에서는 총 43편의 논문 중 송대의 한 시대를 주제로 한 논문 3편을 제외한 40편에 대하여 호원, 소옹, 주돈이, 장재, 정이, 소식, 장구성, 주희, 육구연, 양간, 채침, 전시, 황진, 허형, 오징 등 15명을 인물별로 정리하였다. 북송의 호원1편, 소옹1편, 주돈이4편, 장재3편, 정이2편, 소식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장구성1편, 주희 22편, 육구연1편, 양간1편, 채침과 전시1편, 황진1편의 논문이 있고 원대의 허형2편, 오징2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소옹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며 장재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2편은 박사학위논문이다. 그리고 호원에 관한 논문은 정이와 관련된 논문이며 주돈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육상산에 관한 논문은 주희와 관련된 논문이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희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도의 아주 고무적인 일은 이전에 비교적 연구가 적었던 호원, 장구성, 양간, 전시, 황진, 허형, 오징 등과 같은 인물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43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 7가지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많은 논문

이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1편, 이기론 4편, 심성론 7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1편, 비교 8편, 기타 8편이다. 위에서 제시한 논문 편수를 근거로 경학과 수양론의 논문이 많고 이기론과 인식론의 논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경학 9편, 이기론 10편, 심성론 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 4편, 기타 11편으로 경학, 이기론, 수양론의 논문이 많고 심성론과 인식론의 논문은 적었으며, 2019년에는 경학 3편, 이기론 4편, 심성론 3편, 수양론 3편, 이식론 3편, 기타 5편으로 비교 관련 논문이 없었다. 2020년에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10편으로 경학 3편, 이기론 1편, 심성론 3편, 수양론 2편, 기타 1편으로 인식론과 비교 논문은 없었다. 발표된 논문 편수가 비슷한 2018년과 비교하면 경학, 심성론, 비교 논문은 증가했고 이기론, 인식론 논문은 감소하였으며 수양론 논문은 같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안재호, 윤상수, 이종우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43편이 발표되었다. 2019년 21편, 2020년의 10편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일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대로운 송·원대 유학자들을 연구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